

# '9연패 늪' 시페퍼스 연패 탈출 언제쯤

홈경기서 GS칼텍스에 0-3  
똑같은 전술에 실패 반복  
연패 부진 원인 파악 급선무  
19일 기업은행전 반전 기대



페퍼스가 9연패를 기록하며 깊은 수렁에 빠졌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15일 GS칼텍스를 상대로 펼친 홈경기에서 0-3으로 완패하며 반전에 실패했다. 2021년에 창단된 페퍼스에게 '막내팀' 이미지 탈피를 위한 변화가 절실했다.

페퍼스는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0-3(23-25 23-25 15-25)으로 지며 9연패에 빠졌다.

지난 2라운드 GS칼텍스전에서 3-2로 승리하며 당시 4연패를 끊어냈던 경험이 있는 페퍼스지만, 이번에는 연패가 더해졌다.

이날 페퍼스는 5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온 GS칼텍스의 컨디션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GS칼텍스가 직전 경기인 흥국생명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도 앞섰다.

1세트에서 페퍼스는 GS칼텍스를 따라잡기 위해 끝까지 달렸지만, 세트포인트에 GS칼텍스가 먼저 도달했다. 21-24 상황, 박사랑의 공을 이어받은 박정아의 득점 성공과 상대범실로 페퍼스는 23-24까지 따라잡았지만 실바의 백어택이 나오면서 승리는 GS칼텍스에게 넘어갔다.

공격성공률은 GS칼텍스가 70.37%, 페퍼스가 51.72%로 뒤졌지만 범실은 적었다. 1세트 페퍼스는 GS칼텍스보다 2개 적은 4개의 범실을 냈다.

2세트에서는 페퍼스가 중반까지 흐름을 잡았지만 후반에 무너졌다.

실바의 공으로 17-17 동점을 내준 이후 한 차례 역전 당한 페퍼스는 19-18로 다시 GS칼텍스를 앞섰다. 그러나 실바의 공을 두 차례 연속 막아내지 못하며 우위가 바뀌었다. GS칼텍스가 2점차로 24점에 먼저 달렸다. 박정아의 득점으로 페퍼스가 23



페퍼스 박정아와 오지영이 지난 15일 GS칼텍스와 홈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24, 1점차로 따라잡았지만 곧바로 박정아와 교체 투입된 박은서의 서브아웃이 나오며 2세트 승리 또한 GS칼텍스의 몫이었다.

세트점수 2점을 모두 내어주고 펼친 3세트, 페퍼스는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15-25로 세트를 내렸다. 3세트 리시브 효율은 GS칼텍스가 54.55%, 페퍼스는 17.39%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아스민이 블로킹 득점 1개, 서브 득점 1개를 더하며 20득점을 올리며 분전했다. 수비가 공격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아는 57.89%라는 공격성공률을 보이며 불안한 리시브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GS칼텍스의 실바가 너무 강했다. 실바는 블로킹 득점 1개, 서브 득점 4개를 포함해 총 29득점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의 47.5%를 차지했다.

9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진 페퍼스에 '연패 주범' 찾기보다는 팀의 전체적인 진단과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계속된 연패 속에서 선수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월업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선수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

GS칼텍스전 직후 페퍼스 조 트린지 감독은 "블로킹, 서브가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집중력과 팀워크를 경기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방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든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리그가 길게 진행되는 만큼 똑같은 전술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페퍼스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을 만나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배드민턴 남북 서승재-강민혁 세계 1위 꺾고 '왕중왕전' 우승 BWF 월드 투어 파이널

배드민턴 남자복식 서승재-강민혁(이상 삼성생명)이 세계 배드민턴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

서승재-강민혁(세계랭킹 6위)은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 결승전에서 세계 1위 랭웨이 쑹-왕창(중국)을 2-0(21-17 22-20)으로 꺾었다.

1, 2세트 모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서승재-강민혁의 후반 뒷심이 돋보였다.

1세트 17-17에선 4연속 득점으로 21점 고지를 먼저 밟았고, 2세트 16-13에선 16-20 역전을 허용하고도 듀스 끝에 역전승했다.

이로써 서승재-강민혁은 올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호주 오픈,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 이어 4번째 트로피를 획득하고 우승 상금 21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특히 'BWF 올해의 남자선수'로 뽑힌 서승재는 올 한 해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반면 여자복식 세계 2위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는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에게 0-2(16-21 16-21)로 패배 준우승했다. 이소희-백 하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천칭천-자이판에게 무릎 꿇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BWF 월드 투어 파이널은 배드민턴 국제대회 한 시즌을 정리하는 대회로, 각 세부 종목 상위 8명(팀)만 출전해 최강자를 가린다.

종목별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명만이 4강에 오르는 구조다. 총상금은 250만달러로 올해 BWF 월드 투어 대회 가운데 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스노보드 신동' 14세 최가운 월드컵 하프파이프 우승



최가운이 17일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 마운틴에서 열린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울렛스포츠 제공>

## 이상호 이후 2년 만에 금메달 고교생 이채운 남자부 은메달

'스노보드 신동' 최가운(세화여중)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우승했다.

최가운은 17일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 마운틴에서 열린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2.7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년생 최가운은 이번 대회를 통해 FIS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고, 곧바로 시상대 맨 위에 오르며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알렸다.

우리나라 선수가 스키-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12월 이상호(백산)가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후 이번 최가운이 2년 만이다.

이들 전 예선에서 96.00점으로 1위를 차지,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오른 최가운은 이날 결선에서 90.00점을 받은 오노 미쓰키(일본)를 따돌렸다.

3위는 88.25점의 매디 마스트로(미국)다. 오노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대회 예선을 2위로 통과해 결선 9위를 차지한 선수로, 마스트로 역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예선 4위, 결선 12위에 오른 강자다.

최가운은 2022년 3월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하프파이프 부문 정상에 올랐고, 올해 1월에는 미국의 엑스트림 스포츠 대회 X게임 슈퍼파이프 부문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X게임 슈퍼파이프 종전 최연소 우승 기록은 교포 선수인 클로이 김(미국)의 14세 9개월이었는데, 최가운이 14세 3개월로 이를 바꿨다.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 부문을 2연패 한 '전설'이다.

대한스키협회 회장인 롯데 스키&스노보드팀 소속인 최가운은 올해 2월 미국 듀투어 슈퍼파이프에서도 최연소 우승을 달성하는 등 2023-2024시즌 FIS 월드컵 데뷔를 앞두고 돌풍을 예고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이채운(수리고)은 결선에서 80.00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채운은 이날 초 중국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동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입상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승자 하라노 아유무(일본)가 91.00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회전과 점프 등 공중 연기를 심판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최가운과 이채운은 2024년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물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도 메달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공직청렴 강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임직원 '부패 방지 교육'

### 청렴·공정 중요함 되새겨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부패방지교육'을 열고 공정성의 중요함을 되새겼다.

사무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가인 김태영 강사가 초빙됐다.

전갑수회장, 김영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

처 임직원 30여명은 인문학과 함께하는 공직청렴을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시 체육회의 임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서울의 봄, 3관 소우 X, 비밀, 4관 서울의 봄, 5관 서울의 봄, 3일의 휴가, 6관 서울의 봄, 7관 3일의 휴가, 미끼, 8관 말하고 싶은 비밀, 노 엑시트, 배트맨, 9관 싱글 인 서울, 나폴레옹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GAC 공모전시 김선희 개인전 (my little hero)
일시: 2023-12-01(금) ~ 2023-12-31(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